

“아버지, 불고염치하고 돌아갑니다”

사자성어인 ‘불고염치(不顧廉恥)’에서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마음이야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 경우이겠지요.

첫째는 성격 자체가 원래 너무도 뻔뻔하기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 둘째는 부끄러운 것은 알지만 그것을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아버지 밑에서 부족한 것 없이 살던 그가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달라고 청했던 모습을 보면 분명 성격 자체가 뻔뻔한 것이 분명합니다. 유산을 미리 분배해달라는 말은 그 당시 풍습 안에서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는 말과도 같기 때문이지요. 정말 부끄러움도, 버릇도 없는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집을 떠나 먼 고장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한 후, 곤궁에 시달리며 배고픔에 돼지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을 때 아들에게 들었던 마음은 다릅니다. 아버지를 찾아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용서를 청하겠다는 결심이었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기에 감히 아버지께로 돌아갈 면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저를 받아주시기를 청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명 작은 아들은 염치없는 행동을 했었고 또 곤궁에 처했기에 ‘불고염치’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고염치하고 돌아와 용서를 청하는 ‘용기’가 있었기에, 결국 아버지 집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사순 시기에 하느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리는 데에는 ‘염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하느님을 외면하고, 하느님께로부터 떠나간 적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나의 죄가 부끄러워 하느님을 다시 볼 낮이 없어도 개의치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이제나저제나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사랑 지극한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께 다가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고 달려나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음을 기억합시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냉담한 것이 염치없어서 성당에 못 나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 없는 겸손이며, 또 다른 교만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자비에 대한 믿음을 겸손과 함께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냅시다. 그리고 염치 돌아보지 말고 하느님께 청합시다. “아버지, 돌아온 저를 받아주십시오.”

글/ 이상협(그레고리오) 신부

사람아 무엇을 비웠느냐 - 법정 스님

사람아

무엇을 비웠느냐

사람마다 생각하는 대로 다 버릴 수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버릴 수 없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버리지 못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 하나 얻지 못하니

이것이 너와 내가 숨 헐떡이며

욕심 많은 우리네 인생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 하지 않더냐.

사람들마다 말로는 수도 없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린다고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마음 속에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버려야만 하는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채우려 한단 말이더냐.

사람들마다 마음으로는

무엇이든 다 채우려고 하지만

정작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몸 밖에 보이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허울쫄고 게걸스런 탐욕뿐일진데.

사람아

그대가 버린 것이 무엇이며

얻는 것 또한 그 무엇이었던 말이더냐.

얻는 것이 비우는 것이요,

비우는 것이 얻는다 하였거늘

무엇을 얻기 위해 비운단 말이더냐.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끈적거린 애착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과

불만족스러운 무거운 삶뿐인 것을

비울 것이 무엇이며

담을 것 또한 무엇이랴 하더냐.

어차피 이것도 저것도 다 무거운 짐인 걸

+ 사순절의 기도 (이해인, 수녀)

사랑하는 것은 죽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

당신을 위해서 매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주여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고

사소한 일에도 누구에게나 지려고 하지 않는

승자의 오만 위에 곤두서서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나에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여 나에게는 당신의 굳셈보다는 약함이

무한한 약함이 필요합니다

저주를 당해도 비난치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항거치 않고

죽임을 당해도 원망치 않는

사랑에 찬 약함이

이웃에게 지지 않겠다고 발버둥치고

늘 머리를 쳐드는 나의 오만을

당신의 약함으로 부끄럽게 해 주십시오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본 당 소 식

◎ 부활절 판공성사 안내

시간은 공히 **오후 4시 부터 미사 전** 까지와

미사 후 1 시간에 걸쳐 **2회** 가집니다.

21일(사순 제 5주일)- 조원행 안드레아 신부님

28일(주님수난성지주일)-고원일 안드레아신부님

◎ 주일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상 : 2학년 미만의 어린이

▶문의 및 신청 ; 소피아 자매(519 954 2544)

주일학교에서 필요한 필기구등을 모집합니다.
교우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3월 구역모임 안내

▶키치너 20일(토) 7시 교육관

▶캠브리지 20일(토) 7:30 박용대 형제덕

▶브랜포드 27일(토) 7시 장명길 형제덕

▶워털루 1구역 27일(토) 7시 한택중 형제덕

워털루 2구역 20일(토) 6시 이은희 자매덕

워털루 3구역 13일(토) 7시 신상우 형제덕

워털루 4구역 27일(토) 6시 김호철 형제덕

(모임이 변경되었습니다)

◎ 올뜨레야 3월 모임 안내

▶일시: 3월 21일 (주일) 미사 후 교육관

▶문의: 올뜨레야 간사

◎ 꾸르실리스따 야외 십자가의 길 행사 안내

▶일시; 2010년 3월 27일(토) 오후 2시 정각

▶장소; Serena Gundy Park(작년과 동일)

▶문의: 올뜨레야 간사

◎ 바뇨의 성모 기도 모임 안내

▶ 일 시 ; 3월 19일(금) 오후 7시

▶ 장 소 : 이동기 형제덕

▶기도가 필요하신 교우는 신청해주세요

◎ 청소년부를 위한 공간입니다.

주소 : <http://kwpaul.com/youth>

◎ 사순 십자가의 길 안내

시간은 오후 4시 15분 시작

(선도자 명단

3월 14일-워털루3 구역장 김손권 도미니꼬

3월 21일-워털루4구역장 최우석 F. 사베리오

3월 28일-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지향: 각 구역별로

◎ 교육관에 비치할 영성 도서나 CD를 모집합니다.

담당 : 사목총무 한택중

◎ 성모님동산 기금 헌금을 시작한지 일년이 되어 갑니다.

현재까지 목표치의 절반 이상이 교우들의 정성으로 모아졌습니다. 목표치 달성시까지 계속 진행하오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부승민 형제가 외장 하드드라이브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안내/헌금 담당

▶4월 : 워털루 3 구역

▶5월 : 워털루 4 구역

미사 1 시간 전에 성당에 도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인 1조로 구성하시어 미사 준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3월 7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15.00
교 무 금 : \$ 950.00
101(40), 103(50), 105(20), 109(20), 110(20), 112(100), 116(60), 120(10), 124(20), 130(20), 133(50), 137(300), 150(10), 153(60), 156(20), 166(50), 168(20), 169(80)
성전건립 : \$ 140.00
103(20), 105(20), 110(20), 112(20), 122(20), 130(5), 133(5), 137(20), 150(5), 156(20)
성모님동산 (누계): 금주\$ 5(\$5745.00)
합 계 : \$ 1805.00



KW한인천주교회 St. Paul Chung Parish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FAX 519 954 1913

www.kwpaul.com

주임 신부

사목회장 장명길 바오로 ☎ 519 758 9526

사무봉사자 이상희 세라피아 ☎ 519 894 3533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교리는 1개월 보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10-11호

2010. 3. 14.

사순 제 4 주일

해설 고 영호

차주 해설 박 명옥

성 가

입 당 (119) 주님은 우리를 위해

봉 헌 (518) 선한 사람 아흔 아흔

성 체 (183) 구원을 위한 희생

되 장 (55) 착하신 목자

화 답 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영성체 후 묵상 복음의 작은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자존심이 꺾이는
비참한 체험이 없었다면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 또한 은총입니
다. 실패가 클수록 은총 또한 커지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 해야겠습니다

	독	서
3월 14일	유종훈	정광숙
3월 21일	백옥현	김정숙

	봉	헌
3월 14일	김동규	김은옥
3월 21일	유종훈	정광숙

	복	사
3월 14일	안아림	김근영
3월 21일	최예슬	강수현